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살롬채플
9:00A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기뻐하며 경배하세(찬13/새64장)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박종민 장로 2부/선상균 장로 3부/안경수 집사 4부/김수빈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주의 은혜가 나를 붙드네(김형직 작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 4부/신명기(Deut.) 10:12-22..... Altogether 다같이

말씀 Message 1, 2, 3,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부/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찬404/새304장) 2, 3부/은혜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축도 Benediction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교회에 청년들이 없다?

Have young adults really left the church?



강솔로몬 목사 / Rev. Solomon Kang

제가 예살 채플로 부임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자연스럽게 청년 세대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청년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20대 가운데 기독교인은 9%, 30대는 1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열 명 가운데 한 명 정도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주 한인교회의 청년 사역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청년기는 학업과 진로, 직장 and 결혼 등 삶의 중요한 전환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그에 따라 지역을 옮기는 경우도 많아, 한 교회와 공동체에 오래 머물며 뿌리내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2년 동안 베델교회 예살 채플에서는 조금 다른 풍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주도 방문자가 없었던 주일이 없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예살을 찾은 방문자와 새가족은 286명이었고, 그중 170명이 셀에 배정되었습니다. 올해도 지난주까지 166명이 찾아왔으며, 현재까지 77명이 셀에 연결되었습니다. 지난 4월 부활주일 새생명축제에서는 현장 예배 출석 인원이 처음으로 300명을 넘어서는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열매를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이 숫자를 예살의 ‘성공’이나 누군가의 ‘성과’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보내시는 분도, 한 영혼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도,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부르신 자리에서 말씀과 복음을 충실히 전하고, 맡겨 주신 영혼들을 성실하게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에 충실하려 애쓰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셨고 공동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숫자들은 자량의 근거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은혜의 흔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많은 청년들을 바라볼 때 감사와 함께 사명의 무게를 느낍니다. “이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만큼 많은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이름 없는 방문자에서 믿음의 가족이 되고, 복음을 알고 말씀으로 자라며, 마침내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제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더 깊은 부흥일 것입니다.

청년들은 여전히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우리의 자랑이나 트로피가 되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되라고 보내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제자로 세워 가는 일에 끝까지 충실한 베델교회와 예살 채플이 되길 소망합니다.

It has been two years since I began serving at Yesalm Chapel. Looking back, I find myself thinking about the younger generation and the future of the church. When people talk about the future of the Korean church, I often hear, “There are no young people left in the church.” According to the Ministry Data Institute, as of 2023, only 9% of Koreans in their 20s and 11% of those in their 30s identify as Christians—roughly one out of ten. Young adult ministry in Korean American churches faces similar challenges. These years are filled with major transitions—school, careers, jobs, and marriage. Young adults often relocate along the way, making it difficult to remain rooted in one church community. Yet over the past two years, we have witnessed a different story at Bethel Church’s Yesalm Chapel. Remarkably, there has not been a single Sunday without a visitor. In 2025, 286 visitors and newcomers came to Yesalm, and 170 were connected to small groups. This year, 166 have already visited as of last Sunday, with 77 connected to small groups. At New life festival on Easter Sunday this past April, in-person attendance surpassed 300 for the first time—something for which we are deeply grateful.

Yet the fruit of the church cannot be measured by numbers alone, nor can these numbers be called Yesalm’s “success” or anyone’s “achievement.” God is the One who sends people, opens hearts to hear the gospel, and causes faith to grow. Our calling is to faithfully preach His Word, proclaim the gospel, and care for the souls He entrusts to us. As we have sought to remain faithful to this calling, God has continued to send people and grow this community. These numbers, then, are not something to boast about, but traces of grace that lead us to confess, “God has done this.” So when I look at these young adults, I feel both gratitude and the weight of our calling. Rather than saying, “Look how many people have gathered,” we want to say, “Look how many souls God has entrusted to us.” Our hope is that each person will move from being an unknown visitor to becoming part of the family of faith—to know the gospel, grow in the Word, and eventually become a disciple who serves others. This is the deeper revival we long to see.

Young adults are still knocking on the doors of the church, and God is sending them to us. He is not sending them to become our pride or our trophies, but to become our mission. May Bethel Church remain faithful in proclaiming the gospel to every soul God entrusts to us, nurturing them in His Word, and raising them as mature disciples in Christ.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강솔로몬 목사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신명기 10:12-22

1. 프린스턴 신학생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고 있었지만, 눈앞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나 역시 알고 있는 말씀과 실제 삶 사이에 거리가 있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순종은 은혜의 _____가 아니라 은혜의 순전한 _____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경외하라, 행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지키라"고 정리합니다.(12-13절) 그러나 이것은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14-15절)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3.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규례를 "네 _____을 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13절)
그런데 예배, 말씀, 봉사와 섬김이 어느 순간 기쁨보다 부담으로 느껴진 적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명령이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 가벼워진 부분은 없는지 나누어 봅시다.
4. 신명기 10장 16절에서는 "너희는 _____에 _____를 행하라"고 명령하지만, 이후 새 언약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신명기 30:6, 렘 31:33, 겔 36:26-27)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잘라내시고 새롭게 하셔야 할 완고함은 무엇입니까?
5. "_____ 받은 마음은 결국 _____를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이스라엘에게도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17-19절) 이번 한 주 동안 나그네였던 나를 품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쉽게 지나치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적용하기



선교 후기
브라질

부르심에 응답하니 은혜가 되다



'장로님, 어디로 가시겠어요?' 올해 초, 선교지를 선택해 보라는 권유와 함께 시작된 브라질 단기선교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1년 차 신입 장로에게 주어진다든 선교팀장 면책특권(?)도 누리지 못한 채 팀장을 맡게 되었고, 처음에는 바쁜 일상과 부족한 준비로 인해 걱정과 부담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씩 준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섬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

저 모든 길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후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나누며,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삶과 믿음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십여 년 전 한여 중고등부에서 교사와 학생으로 만났던 형제자매들이 어느덧 대학생과 직장인으로 성장하여, 이번에는 선교의 동역자로 다시 함께 하게 된 것이 제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어린 학생이었던 이들이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도록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은 지면에 모두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에피소드와 감사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일정의 변화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팀원들은 불평하기보다 서로를 배려하고 한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역과 일정을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준비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선교의 주제 말씀이었던 시편 23편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브라질에서 경험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앞으로도 부르시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석승진 장로

사역 소개
웨딩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요



베델 웨딩 사역은 젊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경건한 예식을 통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는 사역입니다. 베델 교회에는 세례식, 결혼식, 장례식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결혼식은 성도의 삶을 이어주는 소중한 중심이 됩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성도가 거룩한 결혼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탄생하며, 훗날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결혼식은 우리

신앙과 삶의 아름다운 여정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한 결혼을 통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곧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상 가운데 넓혀가는 은혜롭고 복된 일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웨딩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나 뜻깊은 스몰 웨딩을 통해 경건한 결혼식을 희망하는 이들이 부담 없이 은혜로운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베델 웨딩 사역을 통해 저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것은 화려한 예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맺는 언약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믿음을 이어가는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동반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식에 함께하는 가족과 성도들이 두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로 격려하며, 그 가정의 첫걸음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 웨딩팀은 한 쌍의 부부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 신랑과 신부 모두가 '하나님께 참으로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뿔라의 땅'과 같이, 늘 축복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주은주 권사

믿음의 고백

나의 마지막 경주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지다가 결심한 일을 시작조차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100m 선수가 출발은 빨랐으나 입상하지 못한다면 그 시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명문학교 입학도 학위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주를 만난 이후 끝까지 믿음

의 경주를 잘 마쳤기에 존경을 받습니다.

저의 목회사역 가운데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중 하나는 한 영혼의 마지막을 함께한 일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의 요청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를 심방하게 되었는데, 그는 신앙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던 분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기 전, 주변 사람들은 복음 이야기만 나오면 격렬히 반응한다는 이유로 함께 들어오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대학 동문이라는 점과 병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으로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며 진심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깊은 대화 끝에 그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였으며, 눈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겉으로는 거부했지만 내면에서는 진리를 찾고 있었음을 고백하였고, 진리를 깨달은 후 그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후 휠체어에 의지해 예배를 드린 뒤, 열흘 후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이 순간이 제 사역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은퇴 이후의 삶과 사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방사역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은퇴 후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제 삶의 다음 단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교지에서 의 삶 속에서도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과 변화되는 삶을 보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의 걸음 속에서도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유한성 선교사

사역 간증 골방기도

주님의 날개 아래

작년에 기도학교 한 학기를 수료하고, 올해는 골방릴레이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어 1월부터 골방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새내기입니다. 7개월밖에 훈련받지 않은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방기도실은 예배실 뒤편에 독립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릴레이로 함께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기도실에서는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정한 요일과 시간을 지키기 위해 구별된 기도의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 웬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것 같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저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 같은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경험했습니다. 보통은 주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이 정말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복한 통일을 위해 기도하던 중,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게 정말 이루어진다고?"라는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창세기 15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자신의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려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뿔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을 앞세워 기도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골방기도실에 직접 나오지는 못하지만, 자녀를 기다리는 차에서나 직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저도 힘을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도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기도의 영적 동력이 끊어지지 않고, 한 사람의 기도가 또 다른 사람의 기도로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골방릴레이기도의 은혜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길 기도합니다.

최경 집사



교회학교: 초등부
여름 수련회

Who Am I in Christ?



We were excited but also nervous because some of us had never been away from our parents. However, our hearts turned toward God when worship began. Through the retreat, I learned invaluable lessons. First, we are created in God's image, reflecting His character. Like a broken mirror cannot fix itself, we cannot save ourselves. We need Jesus to restore us. Second, we are God's workmanship.



We are not accidents or mistakes. Lastly, we deserved what Jesus received, but Jesus received what we deserved. God loved us so much that He sent His Son, Jesus, to be crucified for us. Through worship and fellowship, I felt God's love. Thank you, teachers, leaders, and the guest speaker. Most of all, thank you, God, for the retreat! I hope I can remember what I learned and continue to grow closer to God every day.

계승준(5학년)



수련회를 떠날 때는 친한 친구들이 같이 가지 못해서 서운했지만, 그곳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수련회 둘째 날, 강사 전도사님께서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예수님과 바라바 중 한 사람을 놓아주는 사건을 설명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았어요. Barabbas의 이름에서 'bar'는 아들이고 'abbas'는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바요나'라고 부른 것처럼요. 그래서 바라바는 마치 죄인인 우리를 대표하는 것 같았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죄인인 우리가 대신 놓임을 받은 사건이었어요.

수련회의 주제는 'Identity in Christ'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WORK-MANSHIP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중학교 생활도 매일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Eunice Lee(5학년)

교회학교: BYM Holos
여름 수련회

Blueprint of Life



1년에 두 번 있는 수련회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이보다 소중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Holos 학생들이 모든 방해물 없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도 자녀나 조카,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 그런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예뻐서?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어서? 저는 아직 아빠가 아니지만, 제가 감히 짐작하자면 그저 내 자식이기에 누구보다 사랑스



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이것을 듣고, 깨닫고, 깊이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그토록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저 아버지의 아들, 딸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서 나오는 은혜와 놀라움, 영적 교제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귀한 저희 Holos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am Min(교사)

Before retreat, I didn't realize how much comfort had become an idol in my life.

During one of the messages, the guest speaker talked about four big idols: comfort, respect, approval, and power. I immediately knew mine was comfort, but I realized that recognizing it wasn't enough and that I needed to surrender it to God.

After coming home, I saw God revealing this through my own actions. That day, I had a big fight with my mom because I chose what felt comfortable instead of spending time with my family. I became angry and failed to listen and love her well, leaving me feeling ashamed. Through this, God reminded me that He meets me in my weakness with mercy. Since retreat, I've been challenged to accept His mercy and choose to love and follow Him, even when it's uncomfortable.

Juha Park(10학년)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QTin: 조동현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화평/온유/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은혜/새가족/BCA: 배홍수 목사
 믿음/예배: 이형석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예심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예심채플: 공병주 목사
 예심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환우: 정티나 목사
 Beyond the Blue: 오경희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밀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예심 위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콘텐츠 디렉터: 최중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정아
 수광관: 오춘란

사역광고

셀목자 뱅킷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가장 위대한 드라마에, 하나님께서 직접 캐스팅하신 셀목자 여러분들을, 베밀의 셀목자 뱅킷에 초대합니다! 올해 셀목자 뱅킷은 "Jump into the movie!"라는 테마로 열립니다.

영혼을 품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셀목자님들의 귀한 수고를 위로하고 축하하기 위해, 셀사역팀에서 은혜와 감동, 그리고 웃음이 넘치는 특별한 축제의 자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영화 속 캐릭터나 멋진 파티복으로 변신하고 오셔도 좋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서 준비된 소품으로 가볍게 스타일링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무조건 '행복한 마음'만 지참해 주세요!

사랑하는 셀목자님들, 베밀 셀사역 엔터테인먼트에서 주최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영광스러운 레드카펫을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넘치는 은혜로 재충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Child care가 제공되며, 아이들을 위해 특별 크레프트도 준비 했습니다.

▶ 일시: 8월 29일(토) [Check-in] 오후 4-5시, [뱅크] 오후 5-7시

▶ 장소: 비전채플

▶ 드레스 코드: 당신이 선택한 영화 속 캐릭터의 모습으로 만나요! (의상 부담 갖지 마시고, 모두들 꼭 오세요! 액세서리와 소품이 다량 구비된 스타일링 부스가 현장에서 지원됩니다.)

▶ Child Care 제공

▶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8,9월)	8/30: ①부-송기평	②부-송용훈	③부-송석원	④부-김지수
	9/6: ①부-박세환	②부-심진규	③부-양승화	④부-김진형
	9/13: ①부-오상현	②부-안성희	③부-이길수	④부-나승채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8,9월)	8/29: 이상훈	9/5: 이세웅	9/12: 이연택	9/19: 이장한
강단꽃(8,9월)	8/23: 최하자	8/30: 이수민	9/6: 성홍숙, 오영옥, 최혁성	9/13: 전정례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양재관(응급의학), 간호사-김선미

다음주 | 의사-장원호(족부과), 간호사-황미례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이석배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 **김한요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마지막 수요일출발여행** '인생바다에서 만난 구명선, 이번 주 수요일(26일)은 담임목사님과 함께 구원론의 핵심을 배우는 수요일출발 여행 제4강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진행됩니다. Child Care가 제공됩니다. 일시/장소/문의: 8월 23일(수) 오후 7시, 본당, 조광중 집사 (949)706-4168

◆ **OICOF 특별예배 및 엘리사 새벽기도회** 새 학기를 맞이한 학생들과 함께 '오이코프(OICOF)'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중에는 소망 목장 중심으로 엘리사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9월 1일(화)~4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
엘리사 새벽기도회 대상: 소망 목장(이충경 목사 담당)
OICOF 예배 일시/장소: 9월 4일(금) 오후 7시 30분, 본당
(*오후 5시 30분부터 코트야드에 Food Truck이 찾아옵니다. 구매 후 이용 가능)

◆ **베델 제자훈련생 모집** 차별화된 베델제자훈련을 만나보세요. 신청 기간/방법: 8월 23일(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또는 QR코드
문의: 이승호 집사 (714)510-1364, Rev. James Suh(Eng) (562)447-6947

◆ **화요큐티모임 '울림'** 오늘까지 QR코드와 본당 앞 부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모든 베델인들에게 열려 있는 큐티 소그룹 나눔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첫 예배/문의: 8월 25일(화) 오전 10시, EN채널, 박은혜 권사 (949)910-0327

◆ **베델 MIT 가을학기 모집** 베델 MIT 가을 학기 모집을 본당 앞 부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62세 이상 시니어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9월 4일(금)~11월 20일(금) 12주간, 8월 30일(주일)에 접수가 마감됩니다.
문의: 김재훈 장로 (714)390-4967

◆ **BAM 가을학기 훈련생 모집** 1-3단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방법: 8월 9일(주일)~23일(주일), 본당 앞 부스나 QR 코드
훈련 일정: 8월 27일(목)~11월 19일(목)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총 13주
문의: 장지봉 집사 (949)899-7334

◆ **2027 Blessings to Nations(B2N) 2차 등록** 1차 등록하신 분들은 여권사본과 B2N 등록비를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부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황세현 장로 (949)648-1907, 이충경 목사 (949)537-6968

◆ **기도사역 연합기도회** 골방기도, 레위기기도, 두드림, 기도학교로 동역하시는 분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일시/장소: 8월 29일(토) 헵시바예배 후 오전 7시 30분, 비전채플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Bethel Announcements

◆ **C2C 청소년 연합팀 모집** 댄스를 배우고, 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연합 댄스 사역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학기부터 새로운 Amy Lee 선생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대상/등록비: 6-12학년, \$350
연습 일시/장소: 매주 금요일 오후 4-6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교회학교 교사 연합 기도회** 교육부의 새로운 주제를 나누고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모든 선생님들과 TA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일시/장소: 8월 30일(주일) 3부 예배 후, 오후 1-2시 20분, 체육관(GYM)
문의: 천승현 집사 (512)947-7291

◆ **교회학교 초등부 교사 모집** 4-5학년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삶으로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가르쳐주실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시간: 주일 오전 9시 예배 또는 11시 예배
문의: 김정범 집사 (714)623-0919, Cindy Lee 전도사 (213)335-9049

◆ **멕시코 난민 일일 선교 팀원 모집** 난민 대상 멕시코 일일 선교가 9월 12일(토)에 있습니다. 팀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준비모임: 8월 27일(목)과 9월 3일(목) 오후 6시 30분, 비전채플
신청: 본당 앞 부스 또는 교회 홈페이지
문의: 이길수 장로 (714)328-3350, 이승호 집사 (714)510-1364



◆ **교회버스 세차 봉사** 한 주도 빠짐없이 성도님들의 발이 되어 준 교회 버스를 깨끗하게 단장하려 합니다. 수건과 세제 등 필요한 것은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몸만 오시면 됩니다. 아침 공기 마시며 함께 수고하고, 반짝이는 버스를 보며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일시/장소: 8월 29일(토) 헵시바 후 오전 7시 30분, 코트야드
문의: 심진규 집사 (714)715-6308

◆ **큐티인 9월호 판매** QTin 9월호가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9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축하해 주세요

김유태 집사와 김신영 집사의 딸 김예진(Tiffany) 양과 이유석(Ryan) 군의 결혼식이 8월 15일(토)에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 AWANA(아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일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Solomon Kang

You Must Treat a Foreigner with Love

Deuteronomy 10:12–22

1. Princeton seminary students knew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yet they passed by the person in need right before their eyes. If you, too, have experienced a gap between the Word you know and your actual life, let us share.

2. "Obedience is not the _____ of grace, but the pure _____ of grace." Moses summarizes the life God requires as "to revere, to act, to love, to serve, and to obey". (v. 12-13) However, this is not a condition for obtaining grace, but a response to the grace already received. (v. 14-15) Am I obeying to be loved by God, or am I obeying because I have already been loved?

3. God says that He gave His commands and statutes "for your _____" (v. 13). However, have you ever felt that worship, the Word, service, and ministry were a burden rather than a joy at some point? Perhaps it's not because the burden of God's command has become heavy but, instead, we are not recognizing God's Grace.

4. Deuteronomy 10:16 commands, "You shall _____ your _____," but later, within the promise of the New Covenant, God Himself says that He will renew our hearts. (Ref: Deu 30:6, Jer 31:33, Eze 36:26–27) In order to live as one who has received a new mind and a new spirit, what is the stubbornness within me that God must cut out and renew right now?

5. "A heart that has received _____ eventually comes to love _____." God cares for orphans and widows and loves foreigners, and He tells Israel, "You shall love foreigners". (v. 17–19) Let us remember this week the Grace of Salvation that embraced me, a foreigner, so that we may treat with love the 'people like foreigners' whom I easily pass by.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